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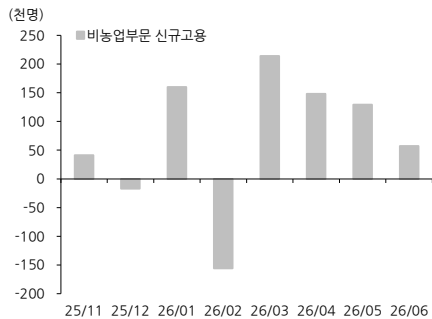
# Macro Review

6월 미국 고용: 녹록지 않은 구직 환경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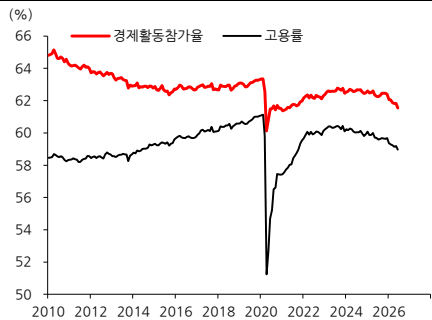
## [주요 데이터 및 차트]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5.7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3%p 하락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은 완만하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구인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채용기조도 여전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비농업부문 고용 예상치 하회

6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5.7만 명 늘어나며 예상치(+11.3만 명, Bloomberg 기준) 하회. 4월과 5월 고용도 하향 조정. 의료서비스(+4.7만 명) 고용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여가/숙박(-6.1만 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 고용 둔화. 정부(+0.8만 명) 고용도 소폭 증가에 그침

실업률은 4.2%로 전월대비 0.1%p,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0.3%p 하락.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또한 올해 가장 적은 수준 기록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3.5%) 상승. 정보서비스(+1.1%)와 유틸리티(+1.1%) 등 고임금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세 강화. 제조업(+0.1%) 임금 상승 압력은 비교적 약했음

### 구직은 여전히 쉽지 않다

노동시장 둔화 추세 전망.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특수 효과 또한 5월보다 작았음. 실업률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장기 실업자 비중(27.3%)이 높아졌고 파트타임 밖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구직자도 늘었음. 여전히 양질의 취업이 쉽지는 않다는 의미. 기업들이 채용도 하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지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활력 약화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이민자들이 임시보호신분(TPS)을 상실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고려할 필요. 구인 수요 약화에 더해 노동공급 구조 측면에서도 부담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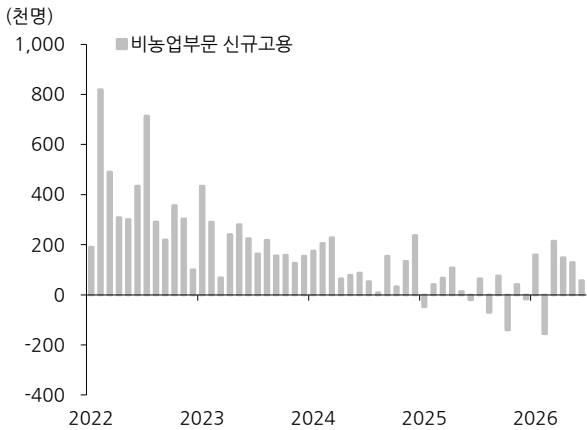
다만 고용 침체 가능성은 낮음. 금번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민 정책 변화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결과로, 구직단념자가 급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 광의의 실업률(U-6)이 재차 하락했고 노동 시장 재진입 인구도 소폭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상 침체 수준 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향후 고용 둔화는 점진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b>비농업 신규고용</b>	<b>-70</b>	<b>76</b>	<b>-140</b>	<b>41</b>	<b>-17</b>	<b>160</b>	<b>-156</b>	<b>214</b>	<b>148</b>	<b>129</b>	<b>57(▽)</b>
민간	-20	68	13	72	-7	180	-148	202	150	97	49(▽)
상품	-35	11	-20	25	-21	45	-21	33	6	7	10(△)
서비스	15	57	33	47	14	135	-127	169	144	90	39(▽)
정부	-50	8	-153	-31	-10	-20	-8	12	-2	32	8(▽)
<b>실업률</b>	<b>4.3</b>	<b>4.4</b>		<b>4.5</b>	<b>4.4</b>	<b>4.3</b>	<b>4.4</b>	<b>4.3</b>	<b>4.3</b>	<b>4.3</b>	<b>4.2(▽)</b>
경제활동참가율	62.3	62.5		62.5	62.4	62.1	62.0	61.9	61.8	61.8	61.5(▽)
고용률	59.6	59.7		59.6	59.7	59.4	59.3	59.2	59.1	59.2	59.0(▽)
<b>시간당 평균임금</b>	<b>4.0</b>	<b>3.8</b>	<b>3.9</b>	<b>3.9</b>	<b>3.7</b>	<b>3.7</b>	<b>3.7</b>	<b>3.4</b>	<b>3.6</b>	<b>3.4</b>	<b>3.5(△)</b>
제조업	4.0	4.1	4.3	4.3	4.4	4.2	4.3	3.6	4.3	3.9	3.8(▽)
서비스업	4.0	3.9	3.9	3.9	3.7	3.6	3.6	3.3	3.4	3.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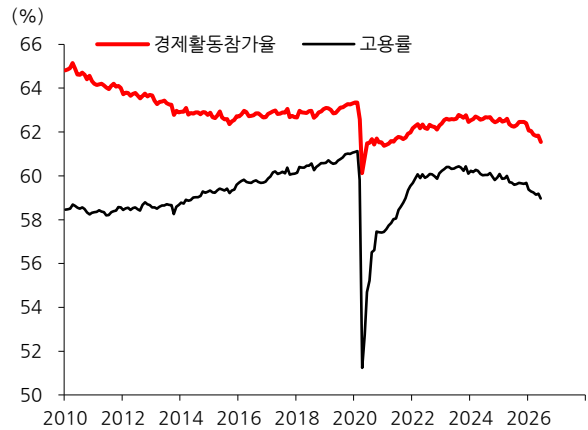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5.7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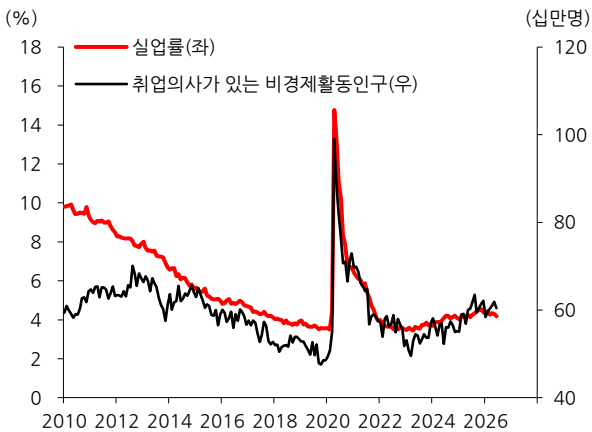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3%p 하락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실업률 전월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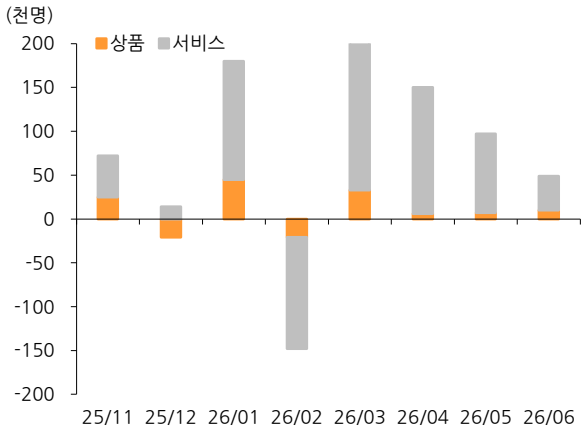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 압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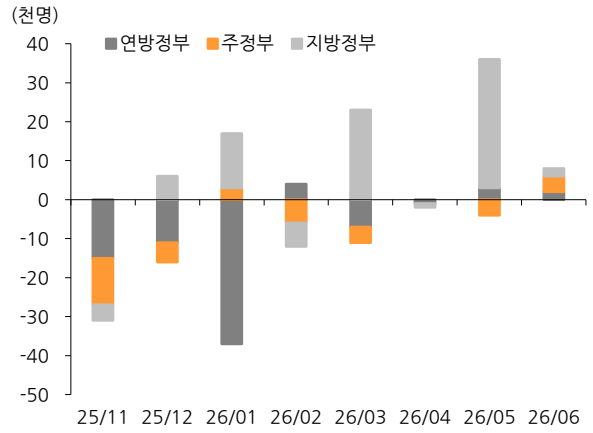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서비스 부문 고용 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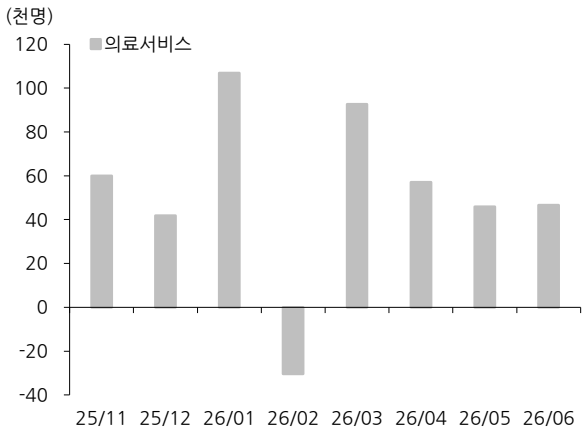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고용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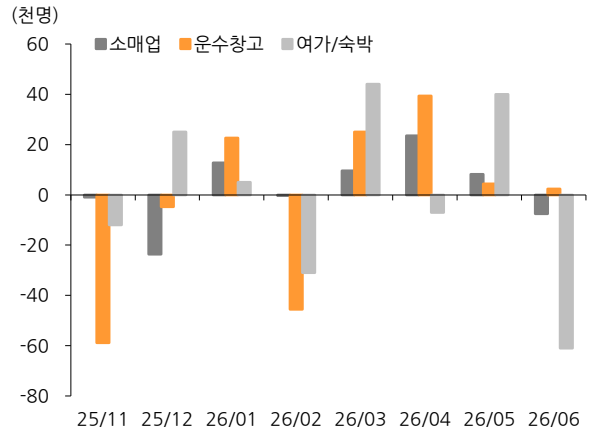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의료서비스 고용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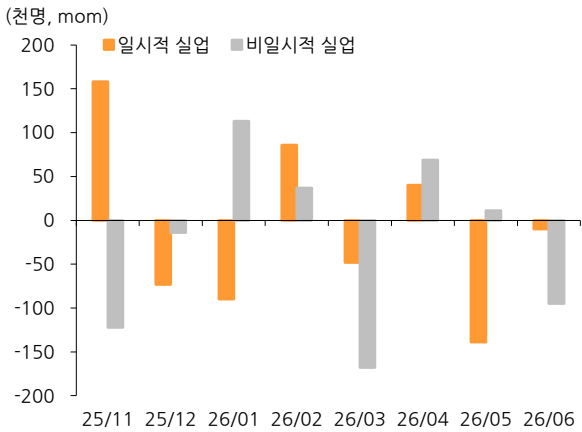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여가/숙박 중심으로 주요 서비스업 고용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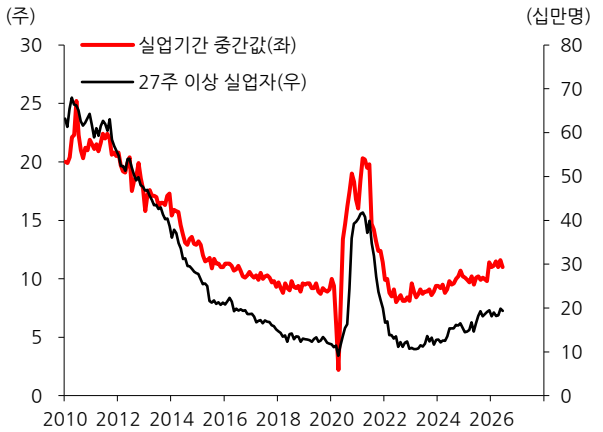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실업자가 대체로 감소했고



주: 2025년 11월 지표는 9월 대비 증감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장기 실업자도 다소 줄어들었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